복음 위에 굳게 서라 (갈 4:22-5:1)

· 순종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목적이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 아래있는 종'과 '약속으로 난 자유자' 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한다.

· 아무리 애를 써서 애를 낳아도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로서 여전히 종이었다. 그러나 이삭은 주인인 사라의 아들로 주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얻어진 것이었다.(22,23 절)

·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거나,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방식, 곧 '육체를 따라' 사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내셨다.

· 바울은 24 절과 25 절에서 다소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한다. 먼저 바울은 몸종인 하갈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종으로 비유한다.(24 절) 사람이 율법을 자신의 의의 근거로 삼으면 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서 죄책감과 정죄 아래에서 종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비해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26 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너희의 신분은 땅의 율법 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말이다. *4 장의 중요한 대조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의 대조

2) 바울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 바울은 창 21:9 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말한 사건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표현한다.(29 절)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박해하다' = ἐδίωκεν (에디오켄) = 종교적 박해를 말하는 강한 표현

·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던 것 처럼,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인간의 행위로 이동한다.

· 바울은 결국 30 절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복음과 율법주의를 섞지 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 내 행위 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다' 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은 변하기 때문이다. *멍에'는 ζυγός (지고스) = 짐승 두 마리의 목에 얹어 일을 시키는 나무

· 바울은 율법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빠지면 '나의 섬김이 부족해서 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 정도는 아닐 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에서 시작한다.

3) 바울은 또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대신 '굳게 서라' 고 한다.

·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굳게 서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현재형의 명령으로 한 번 결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다. *'서다' = '자기 위치를 지키다'

·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 지 못하는 죄인임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자꾸 행위만 고치려 한다. *개그 우먼 이성미 씨가 이혼하려던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

·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 일은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간다.(롬 8:31)

·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되어져야 할 일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되게 하실 것이라 것을 굳게 믿을 때 미래 일에 대해 그저 염려하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내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하게 될 것이다.(롬 8:32)

·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만 스스로의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AI 시대의 유일한 생존 방법

학습 및 적용 문제:

1)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게 됨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설명해보라.

2) 나의 행동을 바꾸려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실망한 적은 없었는 지, 반대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 지 나누어보고, 복음위에 굳게 서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는 지 나누어보자.

Stand Firm in the Gospel (Galatians 4:22–5:1)

Obedience is not a condition for salvation but the purpose for which God has saved us. Through the story of Hagar and Sarah, and their respective sons, Ishmael and Isaac, Paul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are slaves under the law and those who are free through God's promise.

1) Paul explains that we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His promise.

No matter how much effort was made to bring Ishmael into the world, he remained a slave because he was born to a slave woman. Isaac, however, became the son of the master because he was born to Sarah, a free woman. And this was possible only because God, in order to fulfill His promise, intervened with His supernatural grace. (vv. 22–23)

The idea that "I will becom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or "I will earn God's approval through my good works" is, spiritually speaking, the way of Ishmael, a way of living "according to the flesh." Isaac, on the other hand, was born "as the result of a divine promise." His birth was humanly impossible. Yet God promised Sarah that she would have a son, and He Himself fulfilled that promise.

In verses 24–25, Paul uses a rather shocking illustration to explain this truth. First, he compares Hagar, the slave woman, to the law given at Mount Sinai and the slavery associated with it. (v. 24) When people make obedience to the law the basis of their righteousness, they can never fully satisfy its demands. As a result, they end up living like slaves, burdened by guilt and condemnation.

Sarah, by contrast, is a free woman who represents "the Jerusalem that is above." (v. 26) The Jerusalem above refers to the heavenly community that belongs to God. This means that your identity as God's children does not come from an earthly system of law but from God Himself

2) Paul warns that we must never return to the law.

Referring to the incident in Genesis 21:9, where Ishmael mocked Isaac, Paul describes Ishmael's behavior as persecution. (v. 29) He uses this incident to explain what was happening in the Galatian churches. The problem was that the legalists insisted that believing in Jesus alone was not enough. They taught that believers also had to be circumcised and obey the law. **"Persecuted" = ἐδίωκεν (ediōken) — a strong expression that can refer to religious persecution.*

Paul regarded this legalistic thinking as an obstacle to the gospel he preached, just as Ishmael threatened Isaac's position. In fact, the moment we allow such legalistic thinking into our faith, the basis of salvation shifts from the grace of Christ to human works.

Therefore, in verse 30, Paul says, "Get rid of the slave woman and her son." This statement carries an important theological meaning: Do not mix the gospel with legalism. In other words, we must abandon the idea that "Although I believe in Jesus, I can only be saved if my works are good enough." The moment we add human merit to the cross of Christ, we change the very nature of the gospel. **"Yoke" = ζυγός (zygos) — a wooden frame placed on the necks of two animals to make them work together.*

Paul does not consider the law itself to be evil. The problem is the belief that we can be accepted by God and mad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When we fall into that way of thinking, we begin to ask ourselves, "Will God eventually reject me because I have not served Him faithfully enough?" Even if we do not go that far, we may still live with a constant sense of guilt because we fail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But the gospel does not begin with the question, "What have I done for God?" Rather, it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has God done for me in Christ?

3) Paul tells us to stand firm rather than submit again to the yoke of the law.

In conclusion, Paul commands believers to stand firm and not submit again to the yoke of slavery. The command "stand firm" is in the present tense, indicating an ongoing action. It is not simply a one-time decision but a call to "continue standing firm in your position." **"Stand firm" = "Hold your ground" or "Remain in your position."*

The gospel Paul preached has extraordinary power. It enables us to live a life of obedience through faith that firmly trusts in God's promises. Unfortunately, the law itself cannot produce true obedience in us. It only reveals that we are sinners who fail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Yet instead of strengthening our faith, we keep trying to change our behavior through our own efforts. **Illustration: What led Korean comedian Lee Sung-mi to change her mind about getting a divorce.*

People of faith believe that what the Lord has promised will surely come to pass. Therefore, they do not spend their days worrying, complaining, or becoming angry over the circumstances before them. Instead, they entrust their future to the Lord and quietly continue walking the path set before them, faithfully doing what they are called to do today. (Romans 8:31)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our daily needs and livelihood. When we firmly believe that God will make a way, by whatever means He chooses, for the things we truly need and for what must be accomplished according to His will, we will no longer be consumed by anxiety and worry about the future. Instead, we will quietly and faithfully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entrusted to us today. (Romans 8:32)

Faith grows as we continually hear God's Word. We must not neglect His Word while constantly trying to obey Him through our own willpower. That is precisely what it means to live under the law. The gospel leads us to make personal decisions that transform our behavior, and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is revealed through the Word of God.

Discussion and Application Questions

1. Using the examples of Ishmael and Isaac, explain how we become children of God not by obeying the law or through our own works, but through God's promise.
2. Have you ever tried to change your behavior through your own efforts, only to recognize your limitations and become discouraged? On the other hand, have you ever experienced a change in your behavior as a result of growing in faith? Share your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and discuss what personal commitments you have made in order to stand firm in the gospel.